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4. 9.27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미 주

- 베네수엘라, 대통령 암살계획 혐의로 외국인 6명 체포
  - 9.15 베네수엘라 정부\*는 「니콜라스 마두로」 대통령 암살계획 혐의로 미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6명(미국 3, 스페인 2, 체코 1)을 체포, 同 계획이 美 중앙정보국(CIA)과 관련 있다며 압수한 소총 등을 증거로 공개

#### 중 동

- 이스라엘-헤즈볼라, 긴장 고조로 美 전면전 우려 표명
  - 9.21 언론은 美 정부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간 긴장을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으며, 앞으로 양측의 전투 격화로 인한 전면전의 가능성이 있다고 美 고위 당국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
    - ※ 지난 17일부터 무선호출기·무전기 동시다발 폭발로 3천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헤즈볼라 지도자가 이를 '선전포고'로 규정하는 등 戰雲이 고조
- 이스라엘, 레바논 공습으로 300여명 사망
  - 9.24 언론은 이스라엘이 레바논 EU('13.7), 미국('97.10), 영국('19.3) 등 테러단체로 지정 헤즈볼라를 겨냥해 650회 공습으로 1,100개의 시설물에 폭격을 감행하여 민간인 포함 300여명을 사망시켰으며, 공격을 지속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보도

#### 아·태평양

- 태국, 야생동물 보호구역 폭탄·방화 테러 발생
  - 9.22 언론은 무장괴한 약 20명이 태국 나라티왓州 할라발라 야생동물 보호구역 사무실 등 4개 동에 폭탄을 터뜨리고 불을 질렀으며, 직원 4명을 인질로 납치하고 총기 10정을 탈취해 도주했다고 보도

○ 파키스탄, 외교관 차량을 겨냥한 폭탄테러 발생

- 9.23 언론은 파키스탄에서 회의차 방문한 각국의 외교관 차량을 겨냥한 폭탄테러가 발생해 경호하며 앞서가던 경찰차가 피해를 입어 경찰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 당했다고 보도

※ 현재까지 배후는 나오지 않았으나 파키스탄의 인접국 아프간에서 탈레반 집권 이후 테러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바, 우리 국민 대상 안전대책 강구 필요

파키스탄은 지난해 테러로 인해 930명 사망 2000명이 부상

○ 韓 외교부, 유사시 체류 국민 철수 대비

- 9.24 언론은 외교부 1차관이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면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과 관련해 “유사시 우리 국민의 철수 계획도 갖고 있다”며 가용 항공편이 있을 때 출국할 것을 다시 한번 권고했다 보도

※ 외교부에서는 이스라엘(480명) 레바논(140명)에서 체류중인 우리국민 출국을 권고한 상황이며 국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레바논 현지 상황 관련 지속 모니터링 필요

○ 韓, 흉기 난동 예고글 올린 30대 긴급체포

- 9.24 언론은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으며, 同人은 지난 16일 대구국제공항 홈페이지에 ‘공항 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겠다’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

※ 흉기 난동 등 예고글이 증가되고 있는바, 유사 사건에 대한 예방과 엄격한 법적 조치와 온라인 위협에 대한 감시 강화 및 신속한 대응 체계 유지 필요

## 아프리카

○ 말리,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공격으로 325명 사상자 발생

- 9.19 언론은 말리 수도에 위치한 헌병 훈련캠프와 軍 공항을 대상으로 무장세력에 의한 총격전이 발생하여 70여명이 사망하고 255명이 다쳤으며, 알카에다와 연계된 JNIM\*이 이번 공격의 배후를 자처했다고 보도

\* JNIM(이슬람과 무슬림지지그룹)은 부르키나파소 및 말리 등 사헬지역에서 주로 활동하며, UN·미국(18년), 영국(19년)에서 테러단체로 지정

○ 소말리아, 알샤바브 고위 지도자 「알리 게일」 체포

- 9.19 외신은 소말리아 軍이 갈가두드 지역에서 알샤바브 수석 지도자인 「알리 게일」을 체포했으며, 同人은 민간인을 상대로 무차별 테러를 벌이고 어린이를 모집하는 등 잔인한 행위를 일삼았다고 보도

헤즈볼라, 이스라엘 여행객 대상 '폭탄테러' 자행

- '12.7.18 불가리아 부르가스 공항 주차장에서 이스라엘 여행객이 탑승한 관광버스를 대상으로 폭탄테러가 발생, 여행객 등 6명이 숨지고 30여 명 부상



- 이스라엘 「베냐민 네타냐후」 총리는 同테러 배후로 이란의 지원을 받는 레바논 무장정파 '헤즈볼라'를 지목, 강력한 응징을 예고
- 한편, 일각에서는 당해 1월 유럽內 이스라엘人을 겨냥한 테러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, 同테러를 방지하지 못한 불가리아 당국을 비난

- 이후, '20.9.21 불가리아 법원은 궤석 재판(피고인 未출석)을 열고, 同테러 범인으로 기소된 「멜리아드 파라」 등 2명에게 종신형 선고

- 또한, '헤즈볼라'를 테러 배후로 지목하였으며, 테러범들이 버스內 폭탄 가방을 내려놓고 원격조종 장치로 폭발시킨 것으로 확인

⇒ 최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군사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른 만큼, 관련 모니터링 강화 및 역내 우리 국민 신변안전에 만전 필요

\* 이스라엘 내 체류 교민현황 약 450명(2024년 기준, 외교부)

< 헤즈볼라(Hezbollah) >

- (결성) '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계기로 시아파 이슬람 단체인 '이슬라믹 아말'과 '다와'당이 연합하여 결성  
\* 테러단체 지정 : 美('97.10), 英('01.3), 캐나다('02.12)



- (활동지역) 레바논 베이루트, 베카계곡 및 남부지역
- (활동수법) 국경지역 이스라엘軍 대상 게릴라戰 및 해외소재 유대교회당, 이스라엘 관광객 등 대상 폭탄테러 자행
- (주요테러) '83.10 美해병대 캠프에 폭탄차량 돌진(사망 241), '84.9 美대사관 공격(사망 20), '94.7 부에노스아이레스 소재 유대인센터 공격(사망 80)